2012 0728 국가직 7급(인책형)
안녕하세요. 지안 공무원 학원 강사 오경미입니다. 이번 시험은 과년도와 다르게 독해 지문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휘,어법,어문규정은 8문제가 출제되었고 독해는 4문제, 한자와 관용어 문제는 5문제, 문학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바른 것은?
①꽃잎이 한잎∨두잎 강물에 떠내려가∨버렸다.
②이곳에서 주문할 물품의 개수는 스물내지∨서른 정도입니다.
③부장∨겸∨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신 김부장님을 모셨습니다.
④김∨동식∨박사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큰 상을 받게 되셨다.

[해설]
답: ①
①한잎, 두잎/떠내려가 버리다
②이곳, 스물 내지 서른
③부장 겸 대외협력실장/ 김 부장님
④김동식 박사, 노력하신 만큼

2. 밑줄 친 관용 표현 중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은?
①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데, 계속 노력하면 꼭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②아이고, 너같이 느려서야 뭘 하겠니? 갓 쓰고 나가자 파장하겠다.
③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는데, 무슨 일이든 마음 놓지 말고 확실하게 하렴.
④설 쇤 무 같이 야무지고 똑똑하기가 아주 비할 데가 없어.

[해설]
답: ④
④설쇤 무와 같다: 한창때가 지나 볼 것이 없다

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①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②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③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④군불에 밥 짓기.

[해설]
답: ①
②군소리: 쓸데없는 말
③군침: 공연하게 도는 침
④군불: 필요없이 때는 불

4. 다음 예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너는 학생이므로 그 위험한 일에서 한발 비켜서야 한다.

①‘너’와 ‘그’는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품사는 같다.
②이 문장은 11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③‘한발’은 ‘한∨발’로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④‘위험한’과 같은 품사의 예로, ‘헌 물건’의 ‘헌’을 들 수 있다.

[해설] ②
②단어=품사
③한발: (부사)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다른 동작이나 행동보다 시간, 위치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나다
④위험한: 형용사
헌 물건: 관형사

5.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 그녀는 ㉠아름다운 꽃을 품에 ㉡가득 안고 왔다. ▹ 하루 종일 ㉢비가 왔다. ㉣다행히도 마음만은 즐거웠다.

① ㉠: 관형어
② ㉡: 부사어
③ ㉢: 주어
④ ㉣: 독립어

[해설] ④
④부사어

6. 예문의 밑줄 친 부분과 그 수사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김동명, ‘내 마음은’ 중에서-

①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②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 산을 태우고 한 바다를 말리는데
③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④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해설] ②
수사적 유형=은유(A=B, A는 원관념 B는 보조관념, A와 B는 유사성이 있어야 함, 간혹 원관념이 생략될 경우가 있다.)

7.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그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주는 이, 즉 지기자(知己者)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더불어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자신이 받은 만큼 되갚기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나) 무공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협객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협이란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신성명(殺身成名)의 의지를 실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실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야 하며,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가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신의(信義)를 목숨보다도 중히 여길 것으로 강조되는데, 여기서의 신의란 상대방을 향한 것인 동시에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라) 무와 더불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협'의 개념이다. 무협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협이란 무덕(武德), 즉 무인으로서의 덕망이나 인격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는 곧 무공 사용의 전제가 되는 기준 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라)-(가)-(다)-(나)
② (라)-(다)-(가)-(나)
③ (나)-(다)-(라)-(가)
④ (나)-(다)-(가)-(라)

[해설]②
(라): '협'의 개념, 덕망과 인격관의 관계
(다): 절개와 의리, 존엄중시, 간악함제기, 신의
(가): 자기 자신 버리기, 은혜는 은혜대로 원수는 원수대로
(나):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8. 다음 시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후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 길-

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② 부정적인 상황에 한탄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③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는 태도가 드러난다.
④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나 활달한 태도가 드러난다.

[해설]②
길이 끝난 곳->길, 길이 되는 사람,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

9. 번역 투의 표현이 아닌 문장으로만 짝지은 것은?
① ▹나는 부모님에 의해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다.
▹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자고 나가는 곳 외에 아무 의미가 없다.
② ▹이번 방학에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학내 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는 자숙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③ ▹내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이런 짓은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④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늘 조회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해설]③
① ㄱ) -에 의해, ㄴ) -에게 있어서
② ㄱ)계획을 가지다 ㄴ)사건을 필요로 하다
④ ㄱ)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ㄴ)학교 문제에 대한

10.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된 것은?
① 웃니, 찻집, 두렛일
② 굵직하다, 널찍하다, 높다랗다
③ 그렇잖다, 만만찮다, 적잖다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률(成功率)

[해설]③
① 윗니, 찻집, 두레일
② 그렇잖다, 만만찮다,
④ 양심(良心), 유행(流行), 성공률(成功率)

11.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오. -정약용, '보리타작(打麥行)'-

① 농촌에서 노동하는 삶
② 벼슬을 하는 지식인의 삶
③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삶
④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삶

[해설] ③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라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육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다음 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 속의 문장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서로 호응하는 성분 간의 관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① 철수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② 문화 결손은 교육학에서, 어린이가 자라면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 접하지 못한 데서 빚어지는 잘못이다.
③ 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거느린 이 마을 사람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④ 보안과 관계된 사항에는 각종 비문뿐만 아니라 부대 위치 및 지휘관의 신상, 활동 등도 포함된다.

[해설]④

①-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②문화 결손을- 잘못을 가리킨다
③2년 전 당산의 나무를 건드린 마을 사람 중 하나는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하나는 올해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13. 다음 예문에서 이완의 처지를 반영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변 씨는 이완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완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했다.
>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완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완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완이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① 門箭薄待, 坐不安席
② 狐假虎威, 威風堂堂
③ 優柔不斷, 騎虎之勢
④ 虎視耽耽, 威風堂堂

[해설] ①
문전박대: 인정없이 모질게 대함
좌불안석: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위풍당당: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떳떳함
우유부단: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다.
기호지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시탐탐: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듯으로 남의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어 가만히 기회를 엿봄

14. 다음 고사성어와 그 뜻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姑息之計: 멀리 보고 심사숙고한 계책
② 不刊之書: 영구히 전하여 없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책
③ 十日之菊: 국화가 최고로 개화한 상황으로 어떤 일의 절정
④ 浮雲之志: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마음

[해설]②
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不刊之書: 영원히 전해질만한 좋은 책
十日之菊: 한창때인 9월9일이 지난 9월10일의 국화라는 뜻으로 이미 때가 늦은 일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말
浮雲之志: 하늘에 떠도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불의와 부귀를 바라는 마음

15. 다음 예문들을 문맥이 통하도록 배열한 것은?

ㄱ. 하지만 덴마크의 왕 프레데릭 3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면서 그것을 세 번 반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ㄴ.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매체의 효과가 '공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ㄷ. 발겐슈텐이 코펜하겐에서 '마술 활동'을 시연했을 때의 일이다. ㄹ. 신하들 앞에서 군왕으로서 용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ㅁ.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해골이 등장하는 모습에 모두 겁을 집어 먹었다.

① ㄷ-ㅁ-ㄱ-ㄹ-ㄴ
② ㄷ-ㄹ-ㅁ-ㄴ-ㄱ
③ ㅁ-ㄷ-ㄹ-ㄱ-ㄴ
④ ㅁ-ㄷ-ㄴ-ㄹ-ㄱ

[해설]①
ㄷ: ~때의 일이다.
ㅁ: 어둠 속에서 갑자기~
ㄱ: 하지만~ 요청했다.
ㄹ: 용기를 과시했다.
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다음 중 차별적 언어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①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일인 것 같군요.
② 이 소설은 작가의 처녀작으로, 당시 문단의 호응이 매우 컸던 작품입니다.
③ 살구 색 옷은 잘못 입으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입어야 합니다.
④ 복지 정책이 날로 더 발전하고 있으니, 미망인의 문제도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해설]③
①학부형->학부모
②처녀작->처음 출시한 작품
④미망인->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

17. 다음 예문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양이는 영리한 편이지만 지능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썩 머리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와 더불어 고양이가 오랫동안 인간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　　) 때문이다. 주인이 슬퍼하면 고양이는 위로하듯이 응석을 부리고, 싸움이 나면 겁에 질려 걱정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한다. 고양이는 인간의 말을 음성의 고저 등으로 이해한다. 말은 못하지만 고양이만큼 주민 마음에 민감한 동물도 없다. 어

차피 동물이라 모를 거라고 무시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① 말귀를 잘 알아듣기
② 행동의 실천을 바로 하기
③ 감정의 이해가 아주 빠르기
④ 주인에게 충성하기

[해설]③
주인이 슬퍼하면~, 주인이 기뻐하면~

18. 다음 예문 중 경험에 비추어 보지 않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술은?

ㄱ.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 ㄴ. '따진다'는 말은 칭찬보다는 나무람의 뜻을 담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ㄷ.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 ㄹ. 따지는 것은 이지(理智)가 하는 일이며 감정(感情)의 소관사가 아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해설]④
일반적(보편적)진술인 경우를 골라야 한다.
ㄱ: '좋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좋게 여기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담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통해 볼 때, 담고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ㄷ: 환영을 받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19. (　　)안에 들어갈 한자어로 옳지 않은 것은?

소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에서 "자식은 모든 어머니를 삶 가운데 붙들어 매는 닻"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낙이 자식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자식 앞세우는 고통을 다시없이 슬픈 참척(㉡), 빛을 잃어 천지가 캄캄한 상명 (㉢)이라 일컬었다. 시인 김현승은 자식을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이라 했다. 암에 걸린 엄마가 뱃속 아기를 살리려고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아기를 낳고 곧 세상을 뜨면서도 엄마 된 행복에 겨워한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모성과 부성에 대한 믿음까지 버릴 순 없다.

① ㉠: 悲劇
② ㉡: 慘慽
③ ㉢: 喪命
④ ㉣: 刻薄

[해설]③
참척: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다

상명(喪明): 아들의 죽음을 당하다

20. 다음 단어들을 넣어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쓰레기 분리 수거, 재활용 폐지(弊紙), 연간 3,000억 원, 외화 낭비, 환경 보호

① 우리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 연간 3,000억 원을 수입하지 않으면 외화 낭비와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②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하여 재활용 폐지를 연간 3,000억 원 이상씩 수입하지 않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
③ 국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의 재활용 폐지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④ 전 국민이 모두 쓰레기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한다면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활용 폐지의 수입을 막아 외화 낭비도 경감시키고 환경 보호가 된다.

[해설]③
국민 모두가(주어) ~ 참여한다면(동사)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동사) ~실천으로 이어지다(동사)